



해바라기처럼 자라는 아이를 보며

《나는 아직도 선생님 이름을 안 잊어버렸어요》 펴낸 김양덕씨

초등학교 1학년생들의 1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내용이 책으로 나왔다. 《나는 아직도 선생님 이름을 안 잊어버렸어요》(집사재)의 주인공은 17년째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김양덕 교사(46, 서울 강동초등학교)와 1년 전 둔촌초등학교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이다.

“저학년 담임을 오랜만에 맡아서인지 아이들 모습이 많이 달라졌더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2~3일 정도 메모를 해 봤습니다.”

어른들의 예상을 뒤엎는 어린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계속 이를 기록하면 여러 모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기처럼 써나갔다. 어린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일요일·공휴일, 여름·겨울방학을 뺀 220일 동안, 교사를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관찰했다.

처음에 몇 달 메모한 내용을 동료교사 모임에 얘기했더니 몇몇 교사가 복사를 해 달라고 했다. 그때, 책으로 묶으면 주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생활을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썼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부모님과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무얼 배우고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일일이 살펴줘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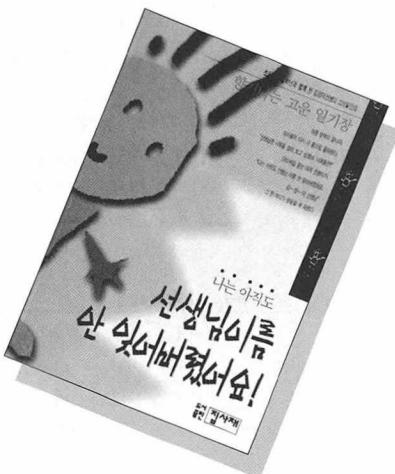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지도는 단순히 교과과정을 진행하는 일이 아니다. 음식 남기지 않기, 자기 물건 잘 챙기기 같은 바른 생활습관, 선생님·친구들과 무리없이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을 기르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특히 학교와 가정을 연결해 주는 알림장 내용을 살펴 준비물을 꼼꼼히 챙겨 보내는 등 학교생활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생활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자신감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좋다는 것.

“하지만 책을 쓴 것이 이런 실용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기쓰기가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기쁨은 엉뚱한 말이나 행동으로 당황시키지만 아이들은 모두 해바라기처럼 올바른 방향으로만 자라거든요.”

실제로 지금 맡고 있는 5학년 아이들에게 책을 읽은 감상을 물으니 자신이 책 속에 담고자 했던 말을 정확하게 집어내더라는 것이다. 심성이 고운 아이, 결과에 집착하기 보다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 검약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달라는 자신의 생각을 또렷이 읽고 있었다. 김 교사는 자폐아·장애아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축하를 받기에 아직 부끄럽다는 그는 언젠가 특수아반을 맡게 되면 더 많은 마음과 손길이 닿아야 하는 그들의 1년을 기록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 이현주 기자



TV와 신문 바르게 읽기

《또또·봄이의 언론여행》 펴낸 김승수씨

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미디어 강좌를 정규과목으로 포함시켜 폭넓은 미디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은 미디어 문제가 대학 입학시험에 논술문제로 출제되는 등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하위문화로 치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성세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초중고생들간의 공통화제가 주로 연예인 이야기나 TV·잡지이야기라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매체교육은 교육개혁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이 김교수의 생각.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개혁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시청자운동 역시 중요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주도해온 우리나라 시청자 운동은 자발적인 시민참여 운동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요.”

김교수는 후속작업으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미디어교육서를 구상중이다. 《한국언론산업론》《현대자본주의와 매스미디어》 등 언론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저술활동을 보여온 김교수로서는 의외의 변신이지만 미디어교육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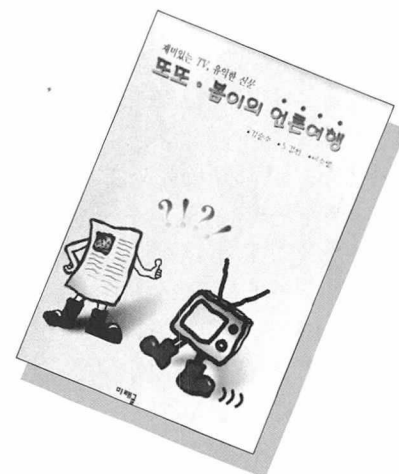
— 마정미 기자

‘TV는 나의 스승’이라는 어느 시인의 시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폭력과 외설,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메시지가 실려오는 대중매체 틈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전북대 신방과 김승수(38)교수는 대중매체가 어린이에게 끼치는 심각한 영향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시청자운동과 미디어교육을 제시한다. 김교수는 최근 방송국PD인 노경완씨, 자유기고가로 활동하는 두 아이의 엄마 이소영씨와 의기 투합하여 《또또와 봄이의 언론여행》(미래글)을 펴냈다.

“우리집 아이들조차 하루 몇 시간씩 TV를 시청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TV가 켜져 있어야 안심할 정도로 영상에 익숙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무얼까 하는 고민이 이 책을 기획하게 했지요.”

이 책은 TV와 신문을 올바르게 수용하고 이해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매체를 어떻게 보고 읽어야 하는지, TV와 신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어떤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군지, 신문기사를 보면서 문장력·사고력·판단력을 어떻게 키울수 있는지 등을 알기 쉽게 썼다. 책이 나오기까지 3년 8개월 걸렸다.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작업을 시작했지만 출판을 늦어지면서 계속 최신자료로 바꾸어야 했기 때문. 김교수는 부모가 먼저 TV와 신문의 피동적인 시청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수용자가 될 것을 조언한다. TV는 반드시 부모와 함께 보면서 비판적 안목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것.





약 발견에 얽힌 이야기들

《이야기 현대약 발견사》
《한약은 필요한가》 펴낸 강건일씨

현대약 발견에 얽힌 이야기와 그 당사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미 외국의 한 출판사로부터 영문출판을 제의받기도 했다.

《한약은 필요한가》는 “약은 항상 발전한다”는 강건일씨의 믿음과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소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서양이라고 전통적인 약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성분분석과 각종 화학실험 및 임상실험을 거쳐 현재의 약을 생산하고, 전통적인 약 처방은 모두 현대약으로 대체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전통 처방인 한약에 의존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전통약은 과학적인 분석과 그 결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미신’에 의존한 바 많다고 본다는 강건일씨는 자신의 이런 생각에 의심이 없다. 앞으로 의약뿐만 아니라 과학 전분야로 범위를 넓힌 비평활동을 하고 싶다는 강건일씨의 소망은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전도하고 싶다는 열망과 다름없다.

— 박남정 기자

강건일(54)씨가 ‘약’에 관한 책 두권을 동시에 펴냈다. 《이야기 현대약 발견사》(가치)와 《한약은 필요한가》(대광문화사)가 그것. 서울대 약대학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와 숙명여대 약학대학 교수를 거쳐 과학저술가로 활발한 집필활동을 하고 있는 그가 일반 대중을 향해 ‘약’ 이야기의 포문을 연 것은 양·한약 분쟁이 일어나면서다.

“분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도 약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펴낸 책이 《재미있는 약 이야기》(1994, 학민사). 약의 역사나 과학성, 한약 분쟁의 원인까지 ‘약’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들을 담았는데, 지나고 보니 역사적으로 틀린 내용도 있고 자신의 주장을 조목조목 다루지 못한 것 같았다. 이번에 나온 두 권의 책은 이런 아쉬움에서 비롯된 책이다.

《이야기 현대약 발견사》는 아마도 약의 역사를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다룬 국내 최초의 책이다. 모르핀·아스피린·인슐린·경구용 피임제 등, 지금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제약원료들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발견되었는지 간명하고 흥미롭게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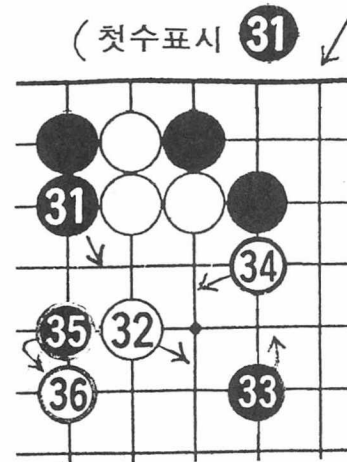
정설만을 다룬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강건일씨는 약에 관한 국내외의 각종 연구논문과 자료를 뒤지는 한편, 외국의 유수한 제약업체에 직접 공문을 발송해 사사(社史)와 각종 자료 및 관련 사진을 수집했다. 덕분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새로운 『기보의 표시방법』 발명특허취득 (발명등록 제 112091호 — 1997. 2. 15 —)

주간한겨레21 (제 144호), 주간뉴스피플 (통권 256호)
S.B.S방송 (2.10), 바둑 T.V (3.9), 중앙일보 (3.19) 보도

종래의 기보표시방법을 혁신적으로 개량한 것이며
(1) 대국수순의 순서찾기가 쉽고 (2) 국지전 (2수, 4수, 6수 단위의 대결상황)의 양상을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3) 해설문에 흑과백의 얼굴표정 (만화식) 그림을 넣어 양대국자의 표정과 그때그때의 대국상황을 표시하여 해설을 아주 재미있게 하였다.



순서대로 흑, 적, 청색으로 둘레표시를 하여 구분하여 볼 수가 있음

은 자신의 승리를 믿었던 게 52로 견고하게 지킬 때부터 낙관했고 이같은 판단은 상을 압박하며 중앙 흑세력을 일거에 지워버린 42부터의 모습은 누가 봐도 ‘백성공’이었다. 계속 이어졌다. 흑은 59로 했으나 뭔가 타격을 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다에게 80을

수 없다”로 일버무리고 있었다 9단이 망설임 없이 22, 범한 것은 묘한 일이다. 1분 초읽기에 몰린 상황이라고 하지만 종반이 특기인 요다가 세번의 실수로 약 2집을 손다. 대신 종반이 약점이라면 초읽기 속에서도 단 한번의 이 완벽한 수순을 보여줬다.

「바둑기보」를 “스포츠게임” 처럼 쉽게 볼 수 있고 「해설」이 “만화”같이 재미있다.

독점출판 하실분 구함

1,000만 바둑애호가인 대환영하고 크게 선호할 명국기보해설집을 계속 독점출판할분을 찾고 있습니다.

- [1]출판사..... 단행본 시리즈, 미니출판물
- [2]주간지사..... 별책부록으로 매주발간
- [3]일간신문사..... 매일기보 3보 게재 (7단크기)
- [4]통신판매사..... 통신판매용 주간지 발간

(02)736-6226 우신공사